

협

회

소

식

본회, 제 2 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본회(회장 : 전동용)는 지난 4월 30일 총 18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영한 전무이사의 최근 양돈경기동향과 정관변경승인 및 자산취득, 가공업무일원화 추진, 최근 국제사료곡물 가격동향세 미나, 방역대책추진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한편 전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양돈인들의 15년 숙원사업인 부가가치세 전면시행과 자조금제도를 올해안에 꼭 이루어야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유능한 회장단들이 열심히 협심해서 양돈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또한 의안사항으로 SEW(격리조기 이유돈사) 부지 답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96임원-지부장 연수회에 대한 의안보고, 돼지 주요 질병 박멸대책 등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행정구역이 통합된 군산·옥구지부는 군산지부로, 해당군의 행정협조가 용이토록 하기위해 광주·장성지부를 광주·장성·담양지부로 지부명칭을 변경했다.

본회, 임직원 연수회 성료



본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임직원 연수회를 임직원 및 지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고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었다.

본회의 조직강화와 돼지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김남철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장의 양돈시책 설명과 토론, 유재일 축협 부부장의 축산분뇨처리 및 시설발전방향, 권오광 박사((주)해청)의 사료값 해소를 위한 사료자가배합에 대한 특강과 우수지부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전동용 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돈농가의 숫자가 줄고 전업화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시점에서는 양돈인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폭등하는 국제 곡물가 등 양돈업의 주변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노영한 전무의 사회로 양돈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가 이뤄지고 양돈인 친선의 밤을 통하여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본회, 「돼지고기가 중금속 해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여

본회는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원장: 김태수)이 주관하는 “육류단백질 및 지방섭취가 카드뮴

및 납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참여 기업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구는 예로부터 속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돼지고기의 중금속 해독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단백질 및 지방 섭취가 카드뮴 및 납 중독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구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이며, 연구의 주요내용은 카드뮴과 납의 임상적 중독현상을 나타낸 흰쥐에게 돼지고기와 쇠고기 급여시 해독에 대한 영향과 돼지기름과 우지 급여시 중금속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본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중금속 해독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홍보활동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의 촉진과 양돈농가 소득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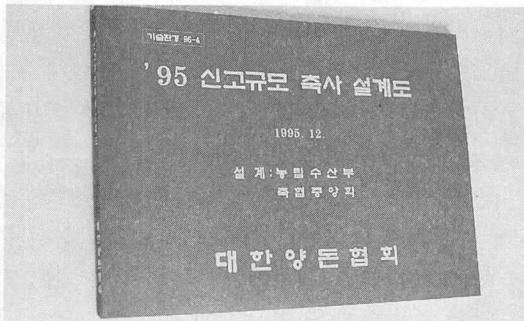
제2차 방역대책 추진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방역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돈장 돼지오제스키병 백신 접종 질병박멸대계획 · 종돈장 위생인증제 실시 등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지역인 용인 · 이천 · 여주 · 홍성지역에 소재해 있는 종돈장의 종모돈 · 종빈돈에 한정해 돼지오제스키병 사독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돼지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한 종돈장은 발생 지역인 여주 · 이천 · 용인 · 홍성지역 내에서만 종돈을 분양토록 함과 함께 90kg 이상의 종돈으로만 분양돼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본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키로 하였다.

본회, 신고규모 축사설계도 각 지부 사무실에 보급



본회는 회원들이 돈사를 건축할 때 소요되는 건축설계비를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돈사설계를 돋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가 제작한 「95 신고규모 축사설계도」 중 돈사부분만 발췌 제작하여 지난 5월 15일 각 지부에 배부하였다.

이 설계도에서는 신고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자돈사, 임신돈사, 분만돈사(횡형과 종형) 2종 등 4종의 돈사 설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축사 건축 인허가 절차와 축사설계도 활용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도시계획 구역밖의 읍·면지역에서는 축사를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종전에는 연면적 합계 200㎡(60평)에서, 지금은 연면적 400㎡(120평)로 2배이상 완화되었으므로 120평 규모내의 건물을 연속해서 건축할 수 있다.

이 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사의 설계없이 120 평까지 돈사를 건축할 수 있다.

제1검정소 “종돈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 '96.5.20일 경매시

본회 제1검정소(소장: 정숙근)는 5월 20일 141차 경매시 검정돈을 구입하는 양돈농가의 개

량의지와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검정소에 출품하는 종돈장 주최로 “구입자 보은의 날”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내용은 출품농장 부담으로 중식(부페) 및 다과를 베풀고 종돈장 소개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대회를 가졌다. 특히 출품 종돈장들로부터 F1 및 순종돈 6~7두가 기증되어 추첨에 의해 무상 분양하기도 했다.

'96년도 임원·지부장 수첩 제작

본회는 임원·지부장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업무 수행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96년도 임원·지부장 수첩을 제작하여 각 지부에 배부하였다.

임원·지부장 수첩은 포켓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임원·지부장의 사진과 함께 자택, 농장의 연락처, 지부사무실의 주소·전화·FAX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남도협의회장에 최영렬 거창지부장 선출



최영렬 협의회장



안석환 협의회부장

경남도 협의회는 지난 5월 6일 마산 로얄호텔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5년도 결산 및 96년도 예산 심의와 임원선출을 하였다. 임원선출을 통해 신임 도협의회장에 최영렬 거창지부장이, 부회장겸 총무에는 안석환 합천지부장이 회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마산지부 돼지고기 소비홍보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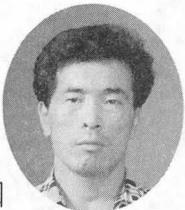


마산지부는 지난 5월 1일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돼지고기 요리전시 및 무료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마산지부는 돼지고기 요리전시 및 무료 시식회를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마산시민의 날 '가고파 큰 잔치' 때에 30종류의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를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김인규 마산시장, 김호일, 강삼재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본회가 제공한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전단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소비캠페인도 전개하였다.

남해지부장에 신주철씨 선출

본회 남해지부는 임기만료된 지부장을 비롯하여 임원진을 개편하고 신임 지부장에 신주철씨, 부지부장에 최희주씨를 선출하였다. 신임 지부장인 신주철씨(39세)는 남해군 서면에서 모돈 220두 규모의 서면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신주철
지부장

옥천 지부장에 이명환씨 선출

본회 옥천지부는 임기만료된 지부장 후임에

이명환씨(43)를 선출했다. 이명환 신임지부장은 7년전부터 농장을 경영했으며, 현재 옥천군 이원면에서 모돈 250여두 규모의 개금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환
지부장

강화지부장에 나병열씨 선출

강화지부는 지난 3월 18일 정기월례회의를 갖고 김영만 지부장 후임으로 나병열씨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나병열
지부장

신임 나병열지부장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예산지부장에 홍재근씨 선출

예산지부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하였다.



홍재근
지부장

신임 지부장에는 홍재근씨, 부지부장에는 백충기씨 총무에는 김상호씨가 선출됐고, 홍재근 신임지부장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서 모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천지부, 사무실 이전

본회, 영천지부(지부장: 김성곤)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영천시 화룡동 275-2번지
- 전화: 0563-31-0888(전과 동일)